

'협한' 발언과 싸워온 日 시민단체, 제1회 인터넷 평화상 수상

선플재단 선플운동본부 제정 인터넷평화상 시상식 및 노벨평화상 수상자 초청강연회 개최

지난 11년 동안 악플과 헤이트스피치 추방, 인터넷상의 인권운동을 펼쳐온 선플재단 선플운동본부(이사장 민병철)가 일본 내 협한시위에 맞서온 시민단체 '가와사키 시민네트워크(대표 세키다 히로오, 90세)'와 인터넷윤리운동가 '오기소 켄(45세)'을 제1회 인터넷평화상(www.internetpeaceprize.org) 수상자로 선정, 시상했다.

인터넷평화상 상장과 메달, 상금이 수여되는 이번 시상식은 선플재단, 한양대학교, 국제인권옹호 한국연맹 공동주최, 취업포털 '스카우트' 후원으로 10월 11일, 오후 2시, 한양대학교 HJT 6층 대회의실에서 열렸고 이어서 노벨평화상 수상자 초청강연회가 진행됐다.

'가와사키 시민네트워크'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헤이트스피치(증오발언)를 추방하기 위해 일본 16개 인권 단체들이 모여 결성된 시민단체로 2016년부터 SNS를 통해 헤이트스피치 감시활동을 호소하고, 극우단체의 '헤이트스피치 집회와 강연회'를 저지한 바 있으며, 헤이트스피치 억제법과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

세키다 히로오 회장은 "지금 일본에서 일어나고있는 협한 헤이트 스피치는 명백한 인권침해 행위다. 가와사키 시민네트워크의 활동은 헤이트스피치에 대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고 평화를 추구하는 활동"이라고 말했다.

'오기소 켄'은 일본에서 40만 명 이상의 네티즌들에게 인터넷 에티켓과 사이버불링(Cyber-bullying) 예방 인터넷 윤리교육을 2천회 이상 실시한 바 있으며, 인터넷 윤리 교육, 집필, 상담 등 다양한 인터넷 평화 활동에 대한 공을 인정받았다. 오기소 켄은 "인터넷상의 허위사실 유포는 상대방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남긴다. 얼굴을 맞대고 할 수 없는 말이라면 인터넷에도 역시 울러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10월 11일, 한양대학교 HJT 6층 대회의실에서 인터넷평화상 시상식이 열렸다. 왼쪽부터, Sammy Takahashi 인터넷평화상 일본지문위원, 라울 헤르네스 주한 필리핀 대사, 민병철 선플재단 선플운동본부 이사장(선플인터넷평화운동 창시자), Tilman Ruff 핵전쟁 방지 국제회의(IPPNW) 공동대표(1985년 노벨평화상수상자), Yamada Takao 제1회 인터넷평화상 수상자(가와사키시민네트워크 사무총장), Ken Ogiso 제1회 인터넷평화상 수상자, Akira Kawasaki 핵무기폐기국제운동(ICAN) 국제운영위원회 대표(2017년 노벨평화상 수상자), 김종량 국제인권옹호 한국연맹 이사장(한양대학교 이사장)

2017년 12월, 북미 정간장 '증오의 말폭탄'으로 한반도가 핵전쟁 위협에 노출되어 있을 당시, 민병두 국회의원의 제안으로 노벨평화상 수상자들을 초청하여 DMZ에서 최순순 강원도지사과 함께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고 북한 선수단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촉구하는 평창평화선언식'이 개최되었다. 이를 계기로 이 행사를 강원도와 공동주최한 선플재단(이사장 민병철)에서 인권 및 세계 평화에 기여를 목표로 2018년 4월 세계 최초로 '인터넷평화상(Internet Peace Prize)'을 제정하였다.

심사위원단에는 1985년 노벨평화상 수상자 Tilman Ruff (IPPNW의 공동대표), 2017년 노벨평화상 수상자 Akira Kawasaki(ICAN 국제운영위원회 대표), 김종량 한양대학교 이사장 (국제인권옹호 한국연맹 이사장), 민병철 선플재단 이사장 등이 참여하고 있다.

심사위원장 김종량 국제인권옹호한국연맹 이사장(한양대학교 이사장)은 "특정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한 차별적이거나 모욕적인 표현을 통해 상처를 주는 헤이트스피치와 사이버불링은 심각한 인권침해"라고 말했다고, 심사위원인 노벨평화상 수상자 틸만 러프는 "인간의 존

엄성을 파괴하는 사이버불링과 헤이트스피치의 심각성을 알리고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한다"고 밝혔고, 또 다른



지난 10월 11일, 한양대학교 HJT 6층 대회의실에서 선플재단 선플운동본부 민병철 이사장이 시상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심사위원 노벨평화상 수상자 아키라 가와사키는, "헤이트 스피치는 사회 화합을 악화시키고 갈등을 유발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실천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강력한 헤이트스피치 추방활동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선플재단 선플운동본부 민병철 이사장은 "국내 체류 외국인 200만 시대에 우리 주위의 외국인들과 소수자들에게 가해지는 헤이트스피치가 도를 넘어서고 있으며, 인터넷상에서 지역간, 국가간 발생하는 혐오 현상이 악플과 헤이트스피치로 인해 더욱 증폭되어 세계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며, "응원과 배려의 선플 운동을 통해 평화로운 지구촌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추방활동'을 통해 인터넷평화운동을 펼쳐온 선플운동본부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근거없는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 등을 하지 말고, 악플로 인해 상처받는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선플달기를 통해 '생명존중' '응원과 배려의 인터넷 문화 조성' 등 '공정에너지 전파'에 힘써 왔다. 현재, 선플운동에는 국내외 7천 여 학교와 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선플달기운동 홈페이지에는 68만 명의 회원들이 올린 선플이 700만 개를 넘었다. 또한 대한민국 국회의원 297명(99%)이 '국회 선플정치 선언문'에 서명하였으며, 미국 국회의원 및 미국 주 하원의원, 일본 국회의원 등 외국의 정치인들도 선플인터넷평화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조은태 기자

생명존중, 헤이트스피치 추방을 위한 2018 청소년 선플누리단 및 선플 지도교사 여름캠프 제천 박달재수련원에서 생명을 살리는 말의 중요성 깨닫는 체험활동과 캠페인 펼쳐



선플운동본부는 7월 21일부터 1박 2일 간, 충북 제천 박달재수련원에서 생명존중, 헤이트스피치 추방을 위한 '2018 청소년 선플누리단 및 선플 지도교사 여름캠프'를 개최했다.

선플운동본부(이사장 민병철 한양대 특훈교수)는 지난 7월 21일부터 1박 2일 간, 충북 제천 박달재수련원에서 청소년 선플누리단 학생들과 선플지도교사 1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생명존중, 헤이트스피치 추방을 위한 '2018 청소년 선플누리단 및 선플 지도교사 여름캠프'를 개최했다.

이번 여름캠프는 인터넷상에서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빼앗는 악플을 추방하고 특정 집단에 대해 증오와 비난을 퍼붓는 헤이트스피치를 반대하는 캠페인을 펼치고,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는 교육과 체험활동이 진행되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서울 양재고등학교 정혜원 학생은 "한마디의 선플은 꽃 하나를 심는 것과 같다. 그 선플들이 많아지면 인터넷 상에 비가 쉬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꽃밭이 만들어진다"고 말했다고, 전국선플지도교사협의회 회장 이상중 광운전자공업고등학교 선플지도교사는 "선

플운동을 통해 청소년들이 악플과 헤이트스피치의 위험성을 깨닫고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좋은 인성을 가진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교보생명' 후원으로 개최된 이번 '2018 청소년 선플누리단 및 선플지도교사 여름캠프'는 나눔을 통해 생명존중과 행복의 가치를 실현하는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의 사회공헌 활동소개 영상을 시작으로, 전국선플사이버 기자단 지도교사 공익기대신교 교사의 '청소년 선플활동과 진로 특강', 선플인성교육연구원 윤상용 본부장의 '사이버윤리' 특강, 생명존중교육협회 김중구 강사의 '생명존중 특강-가장 좋은 날은 아직도 오지 않았다', 의정부청소년수련관 박현숙 청소년지도자의 지도로 진행된 '공동체 협동체험-마시멜로우 탐방기', 증오와 혐오의 헤이트스피치 추방 영상 캠페인 등이 진행되었고, 조별로 선

플과 헤이트스피치 추방을 주제로 하는 미션을 수행하며 보물찾기를 하는 오리엔티어링 등 다양한 활동을 체험했다.

선플재단 이사장 민병철 한양대학교 특훈교수는 "특정 집단을 증오하는 헤이트스피치는 세대간, 지역간, 계층간 갈등을 부추기고 200만 외국인이 함께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 막대한 사회갈등비용을 초래한다"며, "헤이트스피치를 추방하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선플문화를 확산하면 사회통합과 평화로운 세상 만들기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플운동본부는 생명까지 빼앗는 악플과 근거없는 유언비어를 추방하고 응원과 배려의 인터넷 문화를 조성하는 취지로 전국 청소년선플누리단 학생들과 함께 '생명존중 선플달기' '선플거리 캠페인' '선플감사 파견교육' '선플공모전' 등을 전개하고, 우수활동 청소년들과 지도교사들에게 다양한 시상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007년 부터 인터넷상에서 악플 추방과 혐오발언 예방활동을 펼쳐온 선플달기운동본부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악플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생명존중 선플달기를 통해 우리 사회에 공정에너지 전파와 청소년 인성교육 활동을 전개하였다.

또한 교육청 차원에서 선플운동을 전면 도입한 울산교육청은 "선플달기운동 도입 이후, 학교폭력 발생률이 절반 이하로 감소하는 등 청소년 인성교육과 학교폭력 예방에 큰 효과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경 기자



생명에
사랑을
더합니다



“품격 있는 국회를 통해 ‘선플운동’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

문화상 의장 (선플 大賞)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장 문화상입니다. <2018 아름다운 말 선플상 시상식>을 축하드립니다. 뜻 깊은 자리를 만들

어주신 국회 선플정치위원회 민병두·강석호·이찬열·유성엽·윤소하 공동 위원장님과 선플재단 민병철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수상의 영광을 주신 전국 청소년 선플 SNS기자단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요즘 세태에 그 어떤 것보다 귀한 상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언어의 온도’라는 베스트셀러가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지은이는 말과 글속에도 따뜻함과 차가움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사회의 주요 소통공간이 된 인터넷에서는 온기보다는 냉기를 품은 언어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따뜻한 언어는 상대에게 치유와 행복을 주지만, 차가운 언어는 상처와 고통을 안깁니다. 심지어 그 냉기가 사람의 목숨을 빼앗기도 합니다.

개인주의와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따뜻한 공감과 소통은 무엇보다 중요한 사회적 가치입니다. ‘선플’ 운동이 우리 사회에 절실한 이유입니다.

저는 국회의장으로서 정치인의 품격 있는 언어사용을 강조해왔습니다. 국회는 다양한 지역과 계층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서로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 경쟁하고 싸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싸움은 막말이 아니라 논리와 품격을 갖춰 이뤄져야 합니다. 품격 있는 국회를 통해 ‘선플운동’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2018 아름다운 말 선플상 시상식>을 축하드리며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은열 의원 (선플 大賞)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최은열입니다.

청소년 기자단이 선정한 선플대상을 받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오늘날 인터넷이나 SNS세계에서 팽위를 떨치고 있는 가짜 뉴스와 악성댓글은 사회에 큰 파장과 충격을 불러일으킵니다. 반대로, 근거 없는 비난 대신 배려와 칭찬이 담긴 댓글들은 손끝에서 가슴으로 따뜻함을 전달해 줄 것입니다.

인터넷 상에서 익명성에 숨어 악성 댓글로 타인을 비방하는 일은 사라져

야 합니다. 우리는 예의와 격식을 갖춘 민주시민으로서 건전하게 비판하고, 근거 없는 비난 대신 배려와 칭찬의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 또한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서 아름다운 말과 글을 쓰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사람의 마음까지도 얻을 수 있는 말의 위대함을 알리기 위해 힘써주시는 선플운동본부와 이 상을 주신 청소년 여러분께 감사한 마음을 표합니다.

이명수 의원 (선플 大賞)



안녕하십니까.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이명수입니다. 전국 청소년 선플 SNS 기자단이 선정한 ‘2018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플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 상은 우리 청소년들이 직접 선정한다는 것이기에 그 의미와 감격이 더합니다.

반갑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이명수입니다. 전국 청소년 선플 SNS 기자단이 선정한 ‘2018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플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 상은 우리 청소년들이 직접 선정한다는 것이기에 그 의미와 감격이 더합니다.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살아남으려면 상대를 짓밟고 올라서야 한다는 잘못된 메시지가 이 시대에 만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를 격려하고 칭찬하며 존중과 배려를 통한 화합의 소중한 결실이 가져다주는 기쁨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그 사실을 더욱

실감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상은 우리 청소년들이 인생의 선배이자, 정치인으로서 더욱 모범이 되며 올바른 의정활동을 이어가라는 응원의 메시지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원과 열원에 부응하기 위해 그 긍정의 에너지를 정치발전에 쏟아 붓겠습니다.

청소년 여러분 역시 선플달기를 통해 ‘생명존중’, ‘응원과 배려의 인터넷 문화조성’ 등의 긍정에너지 전파가 우리 국민들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박선숙 의원 (선플 大賞)



안녕하십니까? 박선숙입니다.

먼저 ‘아름다운 말 선플상’ 수상자로 선정해 주신 ‘청소년 선플 SNS 기자단’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상임위 활동에만 전념해온 저를 찾아가서 기자단 여러분께서 국회 회의를 참 많이 보셨겠구나 싶습니다.

말은 정치인의 가장 강력한, 어떤 의미에서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칼과 창 요즘 식으로는 총과 미사일 같은 무기를 들고 싸우는 대신 말을 통해 서로의 차이를 좁히고 다름 일을 해결하는 것이 정치의 묘미라 생각합니다. 정치에서는 말이 격해질 때가 많입니다. 격한 말은 힘이 없습니다. 상대와

의 거리를 좁히지도, 상대를 설득하지도 못하기 때문이지요. 저는 정치에서 말이 힘을 갖고, 제 뜻을 하려면 사람에 대한, 상대에 대한 예의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아름다운 말 선플상’의 정신도 그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아름다운 글과 말, 행동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한 사람들에게 주는 상이라고 하니 그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늘 예의와 선의를 잃지 않았는지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주신 상에 부끄럽지 않게 마음가짐을 단정히 하겠습니다. 거듭 감사드립니다.

강석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강석호 위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강석호 위원장입니다.

먼저 선플상을 수상하게 된 것을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더욱이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아름다운 글과 말, 행동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한 사람에게 직접 선정해 주는 상이라고 하니 더욱 기쁩니다.

최근 SNS의 확대로 익명을 악용한 괴소문과 카더라식의 유언비어 재생산, 악의적 글과 동영상 등이 인터넷을 통해 유포돼 사회불안과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플 운동은 근거 없는 악플을 예방하고 언어문화 개선을

통해 오염된 인터넷 문화를 개선하고 진정한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선플운동본부는 청소년들에게 선플 교육을 통해 인터넷상의 올바른 토론문화와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선플 운동이 분명한 인터넷 환경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올바른 언어 환경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 상을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 의정활동을 하며 상대를 배려하고 품격 있는 언어를 사용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대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충북 증평·진천·음성군 국회의원 경대수입니다.

먼저 ‘2018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플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이 상을 받게 해주신 우리 청소년 여러분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청소년 여러분! ‘말도 아름다운 꽃처럼 그 색깔을 지니고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말속에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인성이 담겨있어 우리가 내뱉

는 말의 품격이 곧 우리의 품격이라는 것을 비유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청소년 여러분께서 더욱 올바르게 품격 있는 언어 사용을 통해 더 밝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 번 이 상을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생각하고 지금까지보다 더욱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미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권미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권미혁입니다.

완연한 가을의 한 가운데서 제가 ‘2018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플상’ 수상자로 선정됐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역으로 자라나고 있는 청소년 여러분께서 직접 국회 회의를 분석해 수상자를 선정하셨다고 하니 수상의 기쁨이 더 합니다. 말은 갈등을 조정하고 해법을 찾아 나가는 정치의 주요 수단입니다. 정치의 말로 시작해 말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잘못된 말이 회의의 발목을 잡기도 하고, 올바른 말이 회의의 물꼬를 트기도 합니다. 정치에서 정당간 대결은 불가피하지만, 말의 품격

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마디 말로 천냥 빚을 갚기도 하고, 익명성 뒤에 숨은 댓글은 ‘소리 없는 총’이 되기도 합니다.

인터넷 문화 발달로 언어의 ‘격’ 또한 점점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올바른 비판은 중요하지만, 근거없는 비난은 지양해야 합니다.

2018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플상 수상을 계기로, 갈등을 조정하는 말, 문제를 해결하는 말을 하는 정치인이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따뜻한 말이 넘치는 세상을 위해 노력하는 선플재단·선플운동본부에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권은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권은희입니다.

먼저 ‘2018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플상’을 수상한 것에 대해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올바른 언어사용과 올바른 인터넷 문화를 선도하는 ‘선플달기 운동’이 앞으로 더욱 발전하길 기원합니다.

각종 폭력의 출발점은 언어라고 합니다. 지난 8월 교육부가 발표한 ‘2018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피해 유형 중 1위가 언어폭력(34.7%)이라는 결과도 학교폭력의 시작이 언어라는 점을 방증합니다. 배려와 존중이 결여된 언어사용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게 되고 이는 정서적 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선플달기 운동’이 더욱 확산되어 우리 청소년들의 언어문화가 개선되고 인성함양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앞으로도 언어폭력, 악플 등으로 인해 상처받는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선플달기 운동’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 또한 ‘2018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플상’ 수상자로서 앞으로의 의정 활동에서도 올바른 언어사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아름다운 말과 글로 의정 활동에 임할 것”

김영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 국회의원 김영주입니다.

먼저 '2018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플상' 수상자로 선정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온라인공간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악플과 인신공격은 근절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청소년 선플 SNS 기자단이 직접 근거없는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를

막고, 선플달기를 통해 긍정에너지를 전파하고 있어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상은 앞으로 더 잘하라는 뜻으로 알고, 여러분들과 함께 바른언어 사용에 앞장서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대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국회의원 김종대입니다. 2018년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플상 수상자에 이름을 올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요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온라인은 떼어낼 수 없는 공간입니다. 때로는 상대방과 마주보고 이야기하는 시간보다, 오히려 SNS나 스마트폰 메시지를 통해서 소통하는 시간이 더 긴 날이 있기도 합니다.

익명성이 강한 온라인 환경에서 바른 말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소통의 기본입니다. 근거 없는 악성 댓글, 욕설과 비방, 가짜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온라인 세상을 병들게 합니다. 타인을 향한 부정적인 말들은 결국 나 자신의 인격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선플달기운동을 통해서 대한민국 사회가 더 아름다워지기를 기대합니다. 저 또한 이번 수상을 계기로 의정활동은 물론 온라인상에서도 아름답고 품위 있는 말을 사용하고, 보다 깨끗하고 올바른 인터넷 문화를 만드는 것에 더욱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경미 의원



청소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경미입니다.

'2018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플상' 수상자로 선정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전처럼 서로 얼굴을 맞댄 채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의견을 개진하지는 않지만, 이제는 인터넷과 SNS가 새로운 '광장'이 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 즉, '증오발언'을 통해 다른 사람을 상처주기보다는 나와 다른 의견을 인정하며 서로를 존중하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저도 청소년 선플 SNS 기자단과 함께 아름다운 말을 사용하는 문화가 확산되도록 국회에서 노력하고, 여러분의 활동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자 의원



토고투위원장입니다.

먼저 부족함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이 선정한 '2018 아름다운 말 선플상'을 수상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사이버 공간은 자유롭고 창의적인 소통공간이지만, 사이버 공간의 익명성 뒤에 숨어서 무절제적인 폭언과 욕설로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소위 '악플러'들이 활개를 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인터넷 보급률이 100%에 가까이 도달한 지금은 악플 세례로 인해 유명인이 자살하고 요섭업 등 자영업자들의 영업이 휘청거리며, 이로 인한 고소 고발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루의 피로를 풀고 여가를 즐기기 위해 하는 게임에서조차 상대방과, 심지어 동료까지 비난하며 무분별한 욕설을 내뱉는 일들이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상과 사이버 세상에서 아름다운 말과 글을 실천하는 것은 단순히 타인을 배려하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를 보다 밝고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실천적 행동입니다.

아름다운 말과 글, 행동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선플운동본부 민병철 이사장님과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력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2018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플상' 수상을 기쁘게 생각하며 저 또한 아름다운 언행을 이어 나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산 단원구를 국회의원, 박순자 국

박완수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선플상을 수상하면서 과연 이 같은 과분한 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제 자신을 한 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부족하지만 좋게 봐주신 청소년 기자단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이 상의 취지가 제대로 계승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잘아시다시피 국회의 주된 일이 행정부를 감시 감독하고, 부조리와 잘못된 제도 등을 찾아내서 바로잡는 것입니다. 결국은 여야 모두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 하면서 지나치게 날카로운 말로 국민 여러분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어리석은 일은 만들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국회의원의 말 한마디는 곧 국회의 품격이고 더 나아가 국격이 된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항상 냉정하고 객관적인 눈으로 국회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질책과 조언도 아낌없이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췌록 다시 한 번 과분한 상을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바른말, 바른생각으로 저의 자리에서 책임과 역할을 묵묵히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언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송언석입니다.

우리 청소년 기자단이 직접 뽑은 '아름다운 말 선플상'을 수상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삼사일언(三思一言)이라는 사자성이 있습니다. 세 번 신중히 생각하고, 한 번 조심히 말하라는 뜻으로, 세 번 생각하고 말한 후에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고 보다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가장 유념하는 부분입니다. 국회의원은 정부

에게 국민을 대신해 질문하고 설득하는 사람들이며, 그 과정은 모든 국민들께서 지켜보시기 때문에 단어 선택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당연한 마음가짐으로 의정활동을 하고자 마음먹었는데, 여러분께서 상까지 주시니 매우 기쁩니다.

2018 선플상 수상자로 선정해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국민들께 용기와 희망을 주는 따뜻한 말을 의정활동의 지침으로 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희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송희경 의원입니다.

먼저 2018년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플상'을 수상한 것에 대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청소년 선플 SNS 기자단이 선정했다는 점에서 감회가 더욱 남습니다.

선플은 악플로 인해 고통 받는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댓글을 달아주는 운동으로 비난과 악플로 갈라진 우리사회를 통합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선플달기운동으로 대한민국이 더 밝고 아름다워지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노력하시는 선플운동본부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 의정활동에서 앞장서서 항상 바르고 아름다운 말을 쓰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신용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신용현입니다.

먼저 '2018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플상'을 수상하게 된 것을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인터넷은 새로움을 넘어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공간이 된 지 오래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인터넷 상에서 타인을 비방하는 악플과 입에 담지 못하는 글들이 수없이 오가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악플로 인해 상처받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으며, 심지어 스스로 아까운 목숨을 끊는 사례 또한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청소년 학생들이 이를 무

시코 따라하거나 나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슬픈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플달기 운동은 근거 없는 악플이 주는 피해를 알리고, 건전한 인터넷 문화조성에 기여하는 등 의미있는 활동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노력이 인터넷 문화를 바꾸고, 나아가 대한민국을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앞으로도 더욱 활발한 활동 부탁드립니다.

저 역시 온라인상에서 올바른 언어를 사용하고,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한 의정활동을 해 나가겠다고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말은 인격의 잣대, 바른말 고운말로 존중과 배려 문화 확산”

심기준 의원



‘2018 국회의원 아름다운 선플상’ 수상의 영예를 안겨준 선플상등분부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국 청소년 선플 SNS 기자단’ 대표 학생들이 국회의원복지시스템을 분석해 수상자를 선정했다는 점에서 이번 수상의 감회가 새롭습니다.

인터넷이 우리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소통의 공간이 된 지도 오래 되었습니다.

그만큼 인터넷 사이버 공간에서의 건전한 토론과 비판은 우리 사회의 발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이버 공간이라는 익명성을 악용해 상대를 비방하는 악성 댓글은 우리 사회 구성원들 간의 반목과 갈등을 낳기도 하고, 언어규범의 일탈을 초

래하기도 합니다.

아름다운 인터넷 문화 속 따뜻한 말 한마디, 상대를 응원하는 선플 하나는 우리사회에 긍정의 힘을 확산시킬 수 있습니다.

상대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선플 하나하나가 모이면 긍정적인 인터넷 문화의 확산은 물론, 우리나라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저 또한 이번 수상을 계기로 의정활동은 물론, 온라인상에서도 올바른 언어를 사용하고, 상대를 존중·배려·응원하는 언어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규백 의원



안녕하십니까. 국회 국방위원장 안규백입니다.

우선 “2018년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플상” 수상의 영광을 안겨주신 선플상등분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선플상은 전국의 청소년기자단 학생들의 순수한 눈으로 국회 회의록 시스템을 분석하여 아름다운 언어를 사용한 국회의원들을 직접 선발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깊습니다.

근거 없는 비방, 인신공격성 악플은 상대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게끔 만드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입니다. 또한 상사가 부하에게, 고객이 직원에게, 주민이 경비원에게 가하는 폭언 사례들이 뉴스를 통해 보도 될 때마다, 혀는 칼보다 날카롭다는 舌芒於劍(설방어검)

이라는 말을 떠올리곤 합니다.

사람이 지닌 고유한 향기는 그 사람의 말에서 뿜어져 나오듯이, 평소 사용하는 말은 인품과 인격을 가능하게 하는 잣대입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을 바탕으로 한 좋은 말은 덕(德)으로 돌아오지만, 그와 반대되는 나쁜 말은 반드시 화(禍)로 돌아옵니다. 우리가 항상 좋은 말을 사용하며 말의 품격을 지켜야 하는 이유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2018년 선플상의 수상자로 선정해주신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선플상등분부의 활동이 아름다운 사회를 만드는 데에 큰 보탬이 될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성곤 의원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위성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위성곤입니다.

먼저, ‘2018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플상’을 수상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상을 주신 청소년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소통과 화합의 아름다운 언어 사용을 실천한 사람에게 주는 이 상을 청소년 여러분이 직접 선정했다고 하니 더욱 뜻 깊습니다.

인터넷과 모바일은 때려야 할 수 없는 우리의 일상이 된 지 오래입니다. 그러나 익명의 공간이라는 그늘 아래, 근거 없는 비방 등 수많은 악플들은 사

람들에게 큰 고통과 피해를 주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런 점에서 선플달기운동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아름다운 인터넷 문화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를 하나로 화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아름답고 건전한 언어 사용과 선플달기운동에 적극 앞장서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모범이 되는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중 의원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유재중입니다.

먼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소년 여러분이 선정한 ‘아름다운 말 선플상’을 수상하게 되어 큰 영광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악플과 선플 비율이 4대 1인데 반하여, 가까운 일본은 우리와 정반대라고 합니다.

악플은 그 자체도 문제지만, 부정적인 메시지를 재생산하고 더욱 큰 갈등을 낳아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것이 더욱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회심리학자 로이 바움이스터가 지적했듯이 부정적인 정보가 긍정적인

정보를 압도하기 때문입니다.

선플 운동이 우리 사회에 부분별한 악플 사용을 지양하고, 아름다운 우리 말과 글을 사용하는 바른 문화가 확장되는 데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

앞으로 저도 의정활동을 하는 동안 바른 말과 글을 사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의 땅 끝 해남, 청정해역의 수도 완도, 신비의 바닷길이 열리는 아리랑의 고장 진도 출신 국회의원 윤영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의 땅 끝 해남, 청정해역의 수도 완도, 신비의 바닷길이 열리는 아리랑의 고장 진도 출신 국회의원 윤영일입니다.

먼저 ‘2018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플상’을 수상하게 된 것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영광스러운 선플상을 받게 해준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는 맞아 죽는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무심결에 내뱉은 말과 행동이 상대방에게는 큰 상처로 남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상의 경우에는 더욱 심각합니다. 익명

의 힘을 빌려 인터넷에 다는 악플들은 가해자가 누군지도 알 수 없기에 피해자가 겪는 고통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 “나부터 선플달기에 앞장선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한다면, 대한민국 사회는 더욱 따뜻하고 아름다울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2018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플상’의 수상자로 선정해주신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 바른말 고운말로써는 우리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진복 의원



안녕하십니까. 부산 동래구 국회의원 이진복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 동래구 국회의원 이진복입니다.

먼저 ‘2018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플상’ 수상자로 선정해 주신 전국 청소년 선플 SNS 기자단과 재단법인 선플재단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의 소중한 미래인 청소년들이 주신 상이기에 더욱 깊은 의미가 있고 뜻 깊은 상인 것 같습니다.

‘말’은 미래를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은 듣는 사람보다 하는 사람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고 결국은 그 사람의 인생마저 바꿔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익명에 숨어 무심코 던지는 말 한마디, 댓글 하나하나도 매우 중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의정활동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말 일수록 그 말에는 희망을 담아야 하고 책임을 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희망과 책임 있는 말들이 모여 결국에는 국민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국가를 발전시키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2018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플상’ 수상자로 선정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고, 이번 수상을 계기로 다시 한 번 아름답고 좋은 말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학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경기군 포(을) 국회의원 이학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경기군 포(을) 국회의원 이학영입니다.

‘아름다운말 선플상(賞)’을 수상하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말은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지만, 천 사람의 귀로 들어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중 앞에서 말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서 참 공감어 되는 말입니다. 가볍게 뱉은 말은 한 번이라도 전달받은 사람이 백 명이었다면, 백 번 말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하물며 인터넷에 쓴 글은 전 세계 어디서나, 언제든지, 누구든 볼 수 있으니 사소한 리플 하나라도 그 파급력은 상당할

것입니다. 지금 하는 말이나 게시되는 글이 앞으로 몇 명에게 전달될지 이는 사람은 없습니다. 평소 사소한 한마디라도 올바른 언어를 사용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저 역시, 선플상을 수상한 국회의원으로서 모범이 되어 이해와 배려 섞인 논쟁, 건전한 비판으로 한층 더 성숙한 국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언어 사용을 통한 소통으로, 다양성을 존중하고 화합을 이루는 우리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현희 의원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강남을 국회의원 전현희입니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강남을 국회의원 전현희입니다.

먼저 ‘2018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플상’이라는 뜻 깊은 상을 주신 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혐오 발언이나 악플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날카로운 말 한마디는 사람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영혼을 파괴합니다. 사람들 사이에 갈등을 일으키고, 서로 반목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모두 함께 살아가야 하는 공동체의 구성원들입니다. 나쁜 말로 서로를 상처 입히고 싸우고 함들게 하는 공동체에서 살아갈지, 서로 응원하고 힘을 북돋워주고 함께해서 즐거운 공동체에서 살아갈지는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지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조금 더 화목하고 따뜻한 곳이 되기를 바라는 저의 마음이 담긴 저의 글을 청소년 여러분들께서 알아봐 주셔서 정말 기쁩니다. 그리고 이번 의미있는 상을 주신 데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회가 선플과 아름다운 말이 가득한 곳이 될 때까지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강남을 국회의원 전현희입니다.

먼저 ‘2018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플상’이라는 뜻 깊은 상을 주신 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혐오 발언이나 악플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날카로운 말 한마디는 사람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영혼을 파괴합니다. 사람들 사이에 갈등을 일으키고, 서로 반목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모두 함께 살아가야 하는 공동체의 구성원들입니다. 나쁜 말로 서로를 상처 입히고 싸우고 함들게 하는 공동체에서 살아갈지, 서로 응원하고 힘을 북돋워주고 함께해서 즐거운 공동체에서 살아갈지는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지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조금 더 화목하고 따뜻한 곳이 되기를 바라는 저의 마음이 담긴 저의 글을 청소년 여러분들께서 알아봐 주셔서 정말 기쁩니다. 그리고 이번 의미있는 상을 주신 데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회가 선플과 아름다운 말이 가득한 곳이 될 때까지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정인화 의원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정인화입니다. 2018년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품상을 수상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상을 받게 해준 선품운동본부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국민의 대변자로서 항상 말과 행동에 지나침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다짐을 늘 새기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당선 이후 다채로운 분야에서 여러 차례 상을 받았지만 이번 '선품상' 수상은 개인적으로 큰 명예이자 임법활동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말과 글은 아름답게 사용하자는 것이 대한민국을 더 아름답게 한다는 말처럼 앞으로는 올바른 언어사용과 마음가짐을 통한 모범적인 의정활동에 힘쓰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춘숙 의원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정춘숙입니다. 2018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품상을 수상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듣고, 이 의미 깊은 상을 받을 만큼 남에게 상처 주는 말, 해가 되는 말을 하지는 않았는지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말 한마디면 천 냥 빚도 갚는다는 옛말이 무색하게 현대 사회에서는 온라인상에서 무심코 내뱉는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삶을 극단적인 선택으로 몰아가기도 합니다. 특히 최근에 들어

서는 온라인뿐만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도 타인을 향한 혐오 발언이 난무하고 있어 우리 사회 전반에 사소하지만 따뜻한 말 한마디가 간절하고 그리울 따릅니다. 세계 주신 2018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품상을 늘 머리와 마음에 새겨, 배려와 이해를 담은 말 한마디로 우리 사회를 따스히 밝히는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8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품상을 수상하게 된 것에 감사드립니다.

광운전자공업고등학교 전자기술반 & 참빛선품누리단 입단선서식

전자교육의 요람 광운전자공업고등학교(교장 권오근)에서는 6월 23일, 46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전자기술반&참빛선품누리단 동아리(지도교사 이상중)의 제 38기 신입단원 입단선서식이 있었다. 이번 입단선서식에는 전자기술반 & 참빛선품누리단의 졸업생(졸업생 모임은 KEC-한국전자회-회장 김영선)들도 참가하여 후배들의 동아리 활동을 격려하고 장학금 및 간식을 지원하였다. 전자기술반&참빛선품누리단은 지난 5월과 6월, 선품운동본부가 주최한 공명선거 선품캠페인, 사전투표 거리캠페인 활동과 '학교폭력예방 및 사이버폭력 예방활동' '생명존중 선품캠페인 활동' 등을 학교 교정 및 광운대역과 광운대 정문 앞에서 건강한 사회만들기 선품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선품인성교육연구원 윤상용 본부장의 청소년선품동아리활동에 대한 특강과 광운전자공업고등학교 이득영 선생님의 개회선언을 시작으로 전자기술



6월 23일, 전자기술반 & 참빛선품누리단 제 38기 신입단원 입단선서식을 가졌다. (광운전자공고)

반&참빛선품누리단 입단선서식으로 이어졌다.

제 38기 11명 대표 방형석 학생의 입단선서와 이상중 지도교사의 입단허가로 입단선서식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전자기술반&참빛선품누리단은 졸업생들은 학생들에게 전자기술반 배지를 달아주며 입단을 축하하였으며, 광운전자공업고등학교 문종원 학생은 전자기술반 활동 경과를 보고하며 선품동아리 학생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발표하였다. 전자기술반 졸업생 모임(KEC) 김영선 회장님, 창단 지도교사 오명규선생님의 축사와 <8대 지도교사> 이상중선생님의 훈화말로써 학생들을 다시 한 번 축하하고 전자기술반&참빛선품누리단에 입단하여 열정적이며, 창의적으로 공부하고 바람직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봉사활동 및 거리 캠페인, 정치언어 모니터링 활동 등에 참여할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폐회식 및 기념사진 촬영과 선·후배와 선생님의 간담회로 2018 전자기술반&참빛선품누리단 입단선서식이 마무리 되었다.

전자기술반&참빛선품누리단 동아리는 46년여의 전통을 갖고 있는 동아리로서 전자특성화학교의 특성을 살려 전자관련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전자계산기, 전자기기기사 자격증 취득 공부 및 참의 아이디어 대회 등 각종 대회에 참여하고 있다. 조용태 기자

신한은행, '선품운동 실천협약' 0.5% 추가 우대금리 '선품적금통장' 출시

신한은행(행장 위성호)과 (재)선품재단(이사장 민병철)은 2월 6일(화), 신한은행 본사 15층 신한 심포니 오픈커뮤니케이션에서 '선품운동 실천협약'을 체결하고, 응원과 배려의 선품문화확산을 위해 공동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선품실천 협약으로 신한은행은 임직원들의 선품활동 참여에 봉사시간을 인정하고, 신한은행 디지털플랫폼 '신한솔(SOL)'을 이용한 고객대상 '선품운동 참여 이벤트' 개최, 선품활동을 하는 고객들에게 0.5%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선품적금통장' 등을 출시하고 선품재단과 공동으로 다양한 공익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신한은행은 2006년 9월, 민병철 이사장이 제안한 추임새 운동을 도입하여 인터넷을 통해사내 선품달기를 추진하는 등 청산과 격려로 조직의 생기를 불어 넣는 문화조성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이번 협

약식을 계기로 선품재단이 추진하고 있는 '선품운동'에 동참하게 되었다. 신한은행 위성호 행장은 "신한은행 직원들은 오랫동안의 경험으로 소통과 배려의 문화가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 지를 잘 알고 있다. 댓글 한줄과 말 한마디로도 무리사회에 긍정에너지를 전파할 수 있도록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선품재단 민병철 이사장은 "10여 년 전부터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는 추임새 운동으로 화합의 사내문화조성을 위해 노력해 온 신한은행이 선품운동에 동참함으로써 우리나라 금융경제에도 긍정의 활력을 불어 넣을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협약식에 참석한 민병두 국회의원은 "근거없는 유언비어나 비방은 사회갈등을 유발하고 사회 전체적으로도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힌다. 선품문화 확산을 위해 선품통장이나 포인트 적립을 통한 선품 장학기금 조성 등의 방안도 검토해



2월 6일(화), 신한은행과 (재)선품재단이 신한은행 본사에서 '선품운동 실천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김선동 국회의원, 신한은행 위성호 은행장, 선품재단 민병철 이사장, 민병두 국회의원 (선품재단)

볼 만하다"고 말했다. 김선동 국회의원은 "악의에 찬 언어는 사람들에게 충알보다 더 깊은 상처를 준다. 아름다운 언어사용을 정착시키기 위한 선품운동이 사회 각 분야에 확산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조용태 기자

선품운동본부 제주지부, 선품원탁토론회 개최 "선품운동 활성화 필요"

선품운동본부 제주지부(지부장 조은정)가 8월 22일 제주KAL호텔에서 제2회 선품원탁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친학부모회와 제주도의회, 교육계, 언론계, 도내 고등학생 등 다양한 분야 80명들이 모여 3시간 가량 열띤 토론을 펼쳤다. '건전한 인터넷 문화 조성'과 '공정에너지 확산'을 주제로 한 이날 선품원탁토론회는 악플 경험 사례와 악플 해결 방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 가장 좋은 방안을 찾기 위한 투표도 진행했다. '악플을 경험했다'는 비율이 참석자의 90% 이상에 달했다. 악플을 경험한 사이버공간은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 SNS(33명), 포털기사 댓글(21명), 인터넷신문(4명), 카카오톡(2명), 인터넷 커뮤니티(1명) 등이었다. 경험한 악플의 종류는 모욕감·수치심을 유발하는 인신공격이 27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선부러 비난 19명, 허위사실 유포 12명 등이 뒤를 이었다. 이런 악플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토론회 교육을 통한 소통능력 향상과 법적인 제재를 강화하고 인성교육, IT 기술 개발 등이 의견으로 나왔다. 또한 선품운동 활성화를 위해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활동에 대한 봉사시간·학교생활기록부 등 평가·

보상체계 마련, 활동지원관 설치, 재정 지원 등이 시급하다고 봤다. 조은정 지부장은 "악플을 줄이기 위해서는 근거 없는 비난과 비방을 삼가고, 아름다운 말과 칭찬의 글을 서로가 전해줘야 한다"며 "이번 토론회가 계층·세대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선품달기운동본부 제주지부는 참사랑 실천학부모회 등 도내 기관·단체들이 모여 건전한 인터넷문화 조성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날 토론회 앞서 선품공모전 시상식도 개최했다. 차수연 기자

광주 정광고 선품누리단 '행복나눔 선품 사진 전시회' 개최

정광고등학교(교장 임형철) 선품누리단이 5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정광고 교내에서 '행복나눔 선품 사진 전시회'를 열었다. '행복나눔 선품 사진 전시회'는 작은 관심과 배려의 선품달기 운동을 전교생에게 알리고자 정광고 선품누리단 학생들이 직접 기획해 준비한 행사다. 선품누리단 교사와 학생들은 모두가 격려와 칭찬의 바른 언어 사용을 통해 학교폭력 없는 즐겁고 행복한 학교 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해 왔다. 선품사진 전시회는 지난 2017년부터 올해 5월까지 교내·외에서 펼쳐진 등굣길 학교폭력예방 캠페인, 찾아가는 선품거리 캠페인, 공명선거 캠페인, 광주지역 선품

한마당 등 다양한 체험활동 사진 20점과 일상생활에서 느꼈던 소소한 행복을 담은 사진 50점을 선별해 구성했다. 또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사랑의 편지쓰기, 소망나무 주재별 열매달기 활동을 함께 펼쳐, 전시회에 참여한 학생과 학부모의 관심을 끌었다. 선품달기 운동은 근거 없는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 욕설 등을 하지 말고, 악플로 인해 상처받는 분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댓글을 달아 사회에 긍정에너지를 전파하자는 취지에서 시작했다. 이 운동이 선한 말과 선한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생활실천 캠페인으로 확대되어 현재는 전국 7천여 개의 초·중·고등학생 및 대학생 그리고 100여 개의 기관

및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이번 선품 전시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준비한 정광고 2학년 차준서 학생은 "올해 선품누리단의 일원으로서 친구와 함께 학교폭력예방캠페인과 공명선거 캠페인 활동에 참여했는데, 전시회 준비가 처음이었지만 전교생에게 선품달기 운동의 의미를 더욱 알렸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뿌듯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임형철 교장은 "학생들이 지역사회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사회참여와 공동체 의식을 높이고, 함께 소통하고 나누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선품누리단의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조용태 기자

Advertisement for SCOUT (Scout) and VETERANS SCOUT. The SCOUT section features a QR code, the slogan '기업과 개인이 더불어 행복한 세상' (A world where businesses and individuals prosper together), and lists services like 'On-line 취업 포털 서비스', '헤드헌팅 & 채용 대행', 'HR 컨설팅', '근로자파견·업무위탁', and '경력관리 서비스'. The VETERANS SCOUT section features a QR code, the slogan '일용직 플랫폼의 시작' (The start of the part-time platform), and lists services like '간편하게 관리하는 업체 현황, 스케줄 정보', '인력이 필요할 때 긴급요청 서비스', '등록된 현장에 신속한 인력배치', '빈거로운 출근 확인도 알아서 척척!', '지역, 직종, 경력별로 '인재검색' 서비스', '자등으로 받는 일자리 알림', '공치는 날 없는 베테랑 일자리 찾기', '한눈에 보는 내 일정!', '간편한 출근 확인도 길 찾기 가능까지!', '모든 서비스가 무료'.

‘생명존중 1,000인 선언 및 생명주간 선포식’



9월 4일(화), 프레젠테이션에서 '생명존중 1,000인 선언 및 생명주간 선포식'을 가졌다.

생명존중시민회의는 9월 4일 오전 10시 30분 프레젠테이션에서 '생명존중 1,000인 선언 및 생명주간 선포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김신일 전 부총리, 박경조 전 성공회 대주교, 박종화 경동교회 원로목사, 박남수 전 천도교 교령, 가섭 스님, 신상현 꽃동네 수사, 박인주 생명연대 상임대표, 하상훈 생명의 전화 원장, 양두석 안일련 자살예방센터장, 주대준 CTS회장, 봉두완 전 의원, 임삼진 생명존중시민회의 공동대표, 김미재 내린천노인복지센터 대표 등 170여 명의 시민들이 참석하여 생명존중의 중요성을 천명하였다.

이날 '생명존중 1,000인 선언'에는 김신일 전 부총리 등 각계인사 1313명이 참여한 가운데 "하루에 36명, 1년에 1만 3천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참극은 더 이상 그 해결을 늦출 수 없는 우리 모두의 과제다.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지만 변화를 말하는 사람은 적고, 그들의 목소리는 작다"고 지적하고, "이제 우리

모두가 생명존중을 위한 시민운동, 국민행동에 나설 것을 호소하며 국민들 개개인인 물론 정부와 기업, 학교, 종교계, 언론, 시민사회 모두가 '자살로 내몰리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 내야 할 때"라고 선언하였다.

이들은 생명존중 문화 형성을 위한 대안으로 ▲폭력성을 자극하고 폭력을 조장하는 드라마, 게임, 웹툰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제재를 가할 것 ▲언론과 언론인들은 책임 있는 보도 원칙을 준수하고 그 품격을 지킬 것, 특히 국민의 알권리라는 미명 하에 이루어지는 무책임한 자살 보도는 사리지도록 할 것 ▲상호 존중과 진심어린 위로, 격려 ▲의롭고 다는 이웃이 없도록 종교계와 기업, 가정이 나서 줄 것 ▲악플을 막을 댓글 실명제의 조속한 시행 ▲배려와 공감, 경청을 통한 관계 회복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 가꾸기 ▲힘을 가진 사람들의 절제와 겸손 등 7가지를 제시하였다.

이날 행사에서 박경조 전 성공회 대주교는 그동안 생명존중시민회의와 생명존중공동체회의의 논의를 거쳐 생명주간 선포를 준비한 과정을 소개한 후 "생명존중시민회의는 이 땅에 생명존중 문화를 형성하고, '자살'이라는 이 시대의 아픔을 함께 풀어 나가기 위하여 2018년 9월 9일부터 9월 15일까지 일주일간을 생명주간으로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경 기자

선플운동본부, “여야 국회의원, 좋은 언어사용 결의”

20대 국회 제2기 선플정치위원회 출범 및 조찬간담회 개최

선플재단 선플운동본부(이사장 민병철 한양대학교 특훈교수)는 12일, 김경협, 김선동, 민병두, 이동성, 임종성, 우원식, 송석준, 홍일표 등 20대 여야 국회의원들이 참석한 '20대 국회 제2기 선플정치위원회 출범 및 조찬간담회'를 개최했다.

국회선플위원회는 2007년 11월 7일, 당시 17대국회 통합민주당 유재건 의원과 한나라당 이경재 의원이 10여명의 현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국회정문관에서 국회에서 좋은 언어를 사용하자는 '선플정치선언서'를 갖고 '국회선플정치위원회'가 구성되어 시작되었다. 18대, 19대, 20대 국회를 거치면서 '국회선플지자체위원회', '국회선플글로벌위원회', '국회선플여성위원회' 등이 조직되어 국회선플정치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현재까지, 20대 국회의원 299명중 99%인 297명의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아름다운 말과 글, 행동으로 타인을 격려하고 배려하는 선플운동에 동참하며, 국민이 바라는 화합과 통합의 정치를 이룩하는데 앞장 서 나갈 것을 다짐하는 '국회의원 선플정치 선언문'이 서명했다.



20대 국회 제2기 선플정치위원회 출범 및 조찬간담회 모습

또한, 악플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문제와 막대한 갈등비용을 줄이고 사회에 긍정적 에너지를 확산시키는 취지에서 심재권의원 등 47명의 여야 국회의원들이 뜻을 모

아 '건전한 인터넷 문화조성을 위한 선플의 날 및 선플주간' 제정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2017년 2월 10일

발의되었으며, 지금까지 1년 반이 넘게 소관위원회의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선플운동본부는 그동안 전국에서 선발된 300여 명의 '청소년선플 SNS 기자단'들로 구성된 '정치언어모니터단'을 조직하여 국회의원들이 1년동안 발의한 '국회의원록 시스템'을 분석하고, 선플정치언어를 실천한 국회의원들을 선정하여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플상'을 매년 11월, 청소년들이 직접 시상해왔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한 '국회의원 선플상 시상식'을 위해 지난 8/25(토) 광주(서부권), 9/1(토) 경북 의성(동부권), 9/8(토) 서울(중부권)에서 청소년정치언어모니터단 연수를 개최하고 국회의원록 시스템 모니터링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정치언어모니터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고등학생 이상의 청소년들은 선플운동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국회선플정치위원회 자유한국당 공동위원장 강석호 국회의교위원장인 "선플인터넷평화운동은 주변국들과의 우호관계를 증진시키는 공공외교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 왔다. 앞으로도 글로벌 선플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공동위원장 민병두 국회정무위원장은 "응원과 배려의 선플운동이 확산되어 긍정적 에너지가 넘쳐나면 막대한 갈등비용도 줄이고 우리경제에도 크게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은태 기자

6.25 참전 UN장병 추모 행사 '2018 ThanksUN 2300' 개최



올해 5회를 맞는 '2018 ThanksUN2300'가 선플재단 선플운동본부 후원으로 오는 11월 15일 오전 11시 부산UN기념공원에서 열린다.

ThanksUN2300은 6.25참전 UN장병 추모 비석뒹굴기 행사를 행사다.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전사한 2,300명의 유엔 병사들을 추모하기 위해 열린다. 이번 행사가 열리는 부산UN기념공원은 2,300명의 유엔 병사가 묻혀 있는 유일한 묘지다. 추모 현장은 온라인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올해 행사는 거북백병원, 한국입양어린이합창단, CTS기독교TV, 300프로젝트, 이사벨중학교, 인천하이텍고등학교, 화도중학교 등이 후원한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글로벌청와대인재양성소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보다 많은 국민들이 유엔군의 고귀한 희생과 용기를 기리고 전쟁의 아픔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행사를 주관하는 퍼스널브랜딩그룹 MU의 조연심 대표는 "온·오프라인이 연결된 시대인 만큼, 오프라인에서 진행되는 캠페인의 가치를 온라인을 통해 기록하고 기억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공동주관사인 원하는대로 이경희 대표 역시 "여전히 부산UN기념공원의 아픔을 모르는 국민이 많다"면서 "이 기회로 전쟁의 아픔을 되돌아보고, 유엔 장병들의 숭고한 희생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식 후원사인 거북백병원의 백용기 이사장은 "이번 행사가 6.25 전쟁에 참여한 전사자들이 목숨을 걸고 지키고자 했던 가치, 자유와 평화의 소중함을 되새길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선플재단선플운동본부 민병철 이사장 역시 "이번 행사가 온라인의 선한 힘을 보여주고, 그 영향력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역사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참여는 ▲부산 유엔기념공원에서 비석 뒹굴기 ▲비석과 발 사진 찍기 ▲페이스북 그룹(ThanksUN2300) 가입하기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잊지않겠습니다를 해시태그로 달고 사진과 소감을 올리면 된다. 이경 기자

선플운동본부, 국제인권옹호한국연맹, 매경미디어그룹 '선플운동실천' MOU체결

(재)선플재단 선플달기운동본부(이사장 민병철)는 국제인권옹호한국연맹(회장 김종량), 매경미디어그룹(회장 장대환)과 지난 5월 23일(수), 매경미디어그룹 본사 11층에서 '선플운동실천협약'을 체결하고 인권과 생명을 존중하는 인터넷 인권 옹호운동 확산을 위한 공동사업을 추진 한다고 밝혔다.

국제인권옹호한국연맹은 UN인권이사회 자문기구인 국제인권연맹 가맹단체로 1953년 창립한 이래 인권사상 임원과 인권제도 개선, 인권침해 구제를 위한 활동을 추진해왔으며, 1968년 부터 '국제인권보'를 발간하는 등 50년 넘게 인간의 생명의 중요성과 존엄성을 널리 알리는 활동을 해왔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국제인권옹호 한국연맹 김종량 회장은 "인터넷 상용화 이후로 생겨난 대표적인 사회문제인 악플은 개인의 인권 침해와 명예훼손의 주범이다. 국제인권옹호 한국연맹에서도 선플달기운동을 국민운동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함께



5월 23일(수), 매경미디어그룹 본사 11층에서 '선플운동실천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왼쪽 세번째부터 김종량 국제인권옹호 한국연맹 회장,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 민병철 선플재단 이사장, 윤기원 선플SNS인원위원회 부회장)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매경미디어 그룹 장대환 회장은 "한국에서 악플은 사람 생명을 앗아가기도 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됐다. 인식공격이나 허위사실 유포처럼 불신을 조장하는 문화를 근절하고 아름답고 재미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선플재단 민병철 이사장은 "현재, 100명

의 현직 변호사들로 구성된 'SNS선플인권자문단'이 악플피해자들을 위해 온라인상에서 무료 법률상담을 하고 있다. 이번 '국제인권옹호 한국연맹'과의 선플실천협약을 통해 악플로 인한 인권침해를 막고 피해자들을 돕는 활동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

선플재단 선플SNS인원위원회-교보생명

의 후원으로 진행된 이번 선플협약식을 계기로 매경미디어그룹과 국제인권옹호한국연맹, 선플운동본부는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회문화 조성하고 세대간, 지역간, 계층간 갈등 해소를 위한 사회 문화운동과 생명존중 캠페인을 공동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악플추방과 혐오발원 예방활동을 펼쳐 온 선플운동본부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악플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생명존중 선플달기 운동을 통해 우리 사회에 긍정적 에너지 전파와 청소년 인식교육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국내의 7천여 학교와 단체가 참여하고 있고, 선플운동 홈페이지에는 68만 명의 회원들이 올린 선플이 700만 개를 넘어섰다. 또한 교육청 차원에서 선플운동을 전면 도입한 울산교육청은 "선플운동 도입 이후, 학교폭력 발생률이 절반 이하로 감소하는 등 청소년 인식교육과 학교폭력 예방에 큰 효과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경 기자

국회자살예방포럼, 자살예방 릴레이 2차 세미나 개최

국회자살예방포럼(공동대표 원혜영, 주승용, 김용태) 주최로 8월 30일(목)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되는 '자살예방 릴레이 2차 세미나'에 자살로 내몰리나" 발표할 예정이다.

백중우 한국자살예방협회 사무총장(경희대 교수)은 주제발표를 통해 "자살 사망자 10명중 9명은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으나 치료율은 8.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또한 자살자의 93.4%는 자살 이전 사전 경고신호가 있었음에도 주변에서는 자살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백중우 사무총장은 정신건강실태조사(보건복지부)를 보면 "심리부검대상자중 88.4%는 자살사망 시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으나, 치료율은 편견과 차별에 대한 두려움으로 치료는 8.9%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자살위험성이 높은 사람들에게는 정신과 치료가 필요함을 지적하

였고, 또한 "심리부검 결과, 자살자의 93.4%가 사전경고신호가 있었다"며 "스스로 도움을 청하지 않아도, 경고신호를 인식한 주변의 누군가가 있었다면 얼마든지 접근과 지원이 가능했을 것이며 이에 케이트키퍼 양성교육 등 사회전반의 생명사랑지킴이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원주 교수(한림대)도 "청소년이 더 위험하다"는 청소년 자살 주제발표를 통해 "2016년까지 자살관련 수치는 계속 감소하고 있지만, 10대 아동청소년 인구10만명당 자살률은 오히려 2016년 증가했다"며 "특히 10대 사망원인 중 자살비중은 무려 30%에 달하고 있다"며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국가 차원의 자살예방대책과 인터넷과 SNS상의 자살유해 정보차단 등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이러한 문제제기를 바탕으로 이어진 토론회는 한국자살예방협회 오강섭 (성균관

대의대 교수) 회장이 좌장으로 LifeHope기독교자살예방센터 장진원 사무총장,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송인한 교수, 안일련 양두석(가천대 교수) 자살예방센터장, 자살예방포럼 라이프 이명수 대표(연세사이프 정신의학과과장),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조명연 과장,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 장영진 과장이 참여하여 우리사회가 왜? 자살로 내몰리는지? 불합리한 사회구조의 심각성과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청소년 자살사망에 관한 예방 대책마련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책세미나는 지난 7월 1차 세미나를 시작으로 8월 "왜? 자살로 내몰리나?", 9월 "예산은 얼마나 부족한가?", 10월 "선진국에서는 어떻게 하고있나?", 11월 "대책은 무엇인가? 각 기관의 역할은 무엇인가?", 12월 "법·제도 개선 방안은 무엇인가?" 까지 매월 릴레이 형태로 진행되며, 1회성 정책 세미나를 통한 법률 개정



8월 30일(목),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회자살예방포럼 '자살예방 릴레이 2차 세미나'가 열렸다.

아니, 거시적인 원인과 대책, 방향에 대한 숙고를 거쳐 2019년 1월 종합적인 법률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향후 국회자살예방포럼은 지속적으로 자살예방정책에 대한 문제제기와 해결방안 모색을 통한 법제도 강화 및 예산 확보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조은태 기자

생명보험재단-보건복지부, '생명숲 꿈이름 지원사업' MOU 체결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사장 이종서)은 10월 15일(월) 오후 3시 보건복지부 차관실에서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 이종서 생명보험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보건복지부와 취약계층 아동들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생명숲 꿈이름 지원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생명숲 꿈이름 지원사업'은 지역아동센터 내 초등 저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학습환경을 개선하고, 자기주도 학습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학습부진으로 인한 학교부적응 등의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고자 기획되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생명보험재단은 초등학교 1~3학년 총 1,000여명에게 온라인 자기주도 학습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태블릿 PC 등의 스마트교과재를 개인별로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기자재 지원도 함께 이루어질 예정이다.

생명보험재단 이종서 이사장은 "교육격차가 날로 심화되면서 상당수의 아이

들이 공정한 배움의 기회를 얻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생명보험재단은 '생명숲 꿈이름 지원사업'을 통해 아동들이 자기주도 학습 습관을 기르고, 학습능력 전반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사교육이나 가정 학습지도를 제대로 받지 어려운 아동의 학습 부진율은 일반 아동보다 10배나 심각한 상황이다. 또한 학업 중단율은 4.5배나 높아 학습 습관이 형성되는 시기에 놓인 초등학교 1~3학년 아동들의 맞춤형 교육 지원이 절실하다.

생명보험재단은 2007년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등 20개 생명보험회사들의 공동 협약에 의해 설립된 공익법인으로 고령화국복 지원사업, 저출산해소 지원사업, 생명존중 지원사업, 자살예방 지원사업 등 4대 목적사업을 통해 우리 사회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양한 특화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이경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 삼호중 등 '찾아가는 등굣길 선플달기 캠페인' 펼쳐

울산광역시교육청 선플학부모지원단(회장 최진희)은 9월 4일부터 10월 10일까지 삼호중, 현대중, 동백초, 옥천초 등 4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등굣길 선플달기 캠페인' 활동을 실시했다.

해당 학교의 요청으로 울산광역시교육청 선플학부모지원단의 자발적인 참여와 봉사로 1학기에 6교, 2학기에 4교를 대상으로 학생들의 등굣길에 선플달기 캠페인 및 선플달기 교육 등을 실시한다.

학교폭력예방 캠페인 공모전 표어 부분

최우수상을 수상한 미포초 1학년 허예준 학생의 '예쁜 말씨는 예쁜 꽃을 피운다'는 문구를 이용하여 책갈피를 제작 배부하여 항상 예쁜 말씨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선플배지 만들기, 감사편지 또는 감사문구 쓰기를 등굣길에 실시하고 컴퓨터실에서는 희망 학생 대상으로 선플달기 연수를 실시한다.

울산광역시 선플학부모지원단은 7번째 선플달기 홍보활동, 학생과 학부모대상으로 선플달기 연수, 칭찬문화 조성, 소통과

배려문화 확산, 상호 존중 배려 감사의 언어 사용으로 긍정적 사이버 언어문화조성에 힘쓰고 있다.

학교폭력예방 중 언어폭력, 사이버 괴롭힘 등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선플달기 운동을 통하여 사회 전반에 격려와 응원문화가 확산되고 바람직한 언어문화 등을 전개하여 긍정적 사고 전환으로 사이버 언어 폭력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차수연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 선플학부모지원단이 찾아가는 등굣길 선플달기 캠페인 활동을 펼쳤다. (울산광역시교육청)

칼럼 최우성

선플달기는 인성교육의 실천이다



요즘 언론에 자주 보도되는 내용은 학교폭력, 성폭력 등 학교와 관련이 있거나 초중고 학생들이 피해를 당하는 기사들이다.

참으로 안타깝고, 이들 사건은 우리 사회의 일그러진 자화상을 보여준다. 최근에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정치인들의 폭언과 무례한 행동이 도를 넘어지면서 '막말(욕설) 문화'가 청소년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청소년 언어사용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청소년들의 73%가 매일 욕설을 사용하고 평균 1분에 한 번씩 욕설을 한다. 목을 하는 이유는 습관, 친구들과의 욕조, 스트레스 해소, 친구 갑의 표현, 휴대 전화 등이다.

공통된 바탕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존중의 결여이다. 짧은 중에서 이처럼 수준미달의 비열어진 인성이 만들어진 것은 초·중·고 시절 욕(욕설)을 해야 강해 보이는 '포래문화'의 부정적 영향

이 적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무조건 이기고 봐야 한다'는 도를 넘은 무한경쟁의 부작용이 잘못된 인식을 심어준다.

대중매체의 막말 방송과 드라마도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의 말투를 거칠게 만드는 한 몫 했다고 볼 수 있다. 나홀로 인터넷 또는 게임을 즐기는 시간이 늘어난 것도 개인주의 성향을 심화시킨 원인으로 지적된다. 인터넷 문화 역시 주변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무엇보다 공통적으로 문제의 시작점은 가정의 밥상머리교육의 부재, 학교의 삼급학교 진학을 위한 입시위주의 교육, 사회에서 중도탈락학생들을 받아들이는 시스템의 부재를 들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타인에 대한 배려와 존중을 기를 수 있는 제대로 된 인성교육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최근 부각되고 있는 자발적 봉사활동인 '선플달기'는 인성교육의 실천이다. 청소년들은 인터넷, SNS, 스마트폰 등으로 인하여 더욱 빠르게 악성 댓글에 노출이 되고 있으며, 많은 수의 청소년이 직접 욕을 하고 악플을 보면서 직접 악플을 달고 있는 것이다. 이런 문제점을 해

결하고자 2007년부터 등장한 것이 선플달기운동이다.

일선 학교에서 학생과 교사가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가끔씩 선플 교육의 0.01%도 안되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선플의 문제점을 부각시키려는 불순한 세력들이 있다고 한다.

모든 교육에서 100% 완벽하게 학생들이 소화할 수는 없다. 가끔은 학생들이 울바르지 않게 선플을 달 수도 있다. 기성 세대인 어른들이 보듬어 주지는 못할지언정 그것으로 전국의 수많은 청소년과 선생님들의 봉사를 헛되어 치부되는 경우를 보면 씁쓸하기 짝이 없다.

선플달기 봉사활동은 봉사활동의 필요성을 충족시키고 있으며, 입시위주의 교육현실에서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훌륭한 봉사활동 영역이라고 생각한다. 즉, 선플달기 봉사활동을 꾸준히 수행하는 학생은 보람과 흥미를 느끼고, 자신의 잠재적 능력을 발휘하여 건강한 인성을 형성하여 최근의 문제가 되는 학교폭력, 성폭력 등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된다.

선플달기 봉사활동은 청소년들이 인터넷 상에 게시된 글에 대하여 자신만의 생각을 종합하여 긍정적인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사고력을 바탕으로 선한 댓글을 진행하는 심오한 자원봉사 활동으로, 단 시간에 대중 글쓰기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다.

수많은 청소년들이 초중고에서 선플 교육을 받고, 대학생이 되었고, 일반 사회인으로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려는 일선학교의 청소년과 선생님들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많은 국민들이 선플 운동의 긍정적인 면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학교폭력, 성폭력, 청소년 자살문제, 왕따 등으로 인성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시점이다. 이런 일련의 문제점을 자발적인 봉사활동인 '선플달기운동'이 다잡아주고 있다.

각종 폭력의 출발점은 언어라고 한다. 언어순화교육, 자원봉사의 일환인 선플달기운동은 더 정착되고 지속적인 것으로 장려되고 촉진되어야 할 우리들의 인성교육이다. 앞으로도 많은 청소년들이 선플달기와 바른말 고운말 언어생활을 하여 더욱 강해진 IT강국 대한민국과 학교폭력, 성폭력 등이 없는 행복한 학교를 꿈꿔본다.

칼럼 석호익 / 동북아공동체ICT포럼회장, 한국디지털융합진흥원장

댓글 문화의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얼마전 드루킹 사건이 우리나라를 뒤흔드는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드루킹 사건이란 '드루킹'이라는 별칭을 사용한 김모 일당이 인터넷 댓글을 조작해 여론을 왜곡하고 특정 정치 세력을 위해 여론몰이를 한 사건이다. 드루킹은 인터넷상의 유명 인사로 회원이 2000명이 넘는 카페를 운영하고 누적방문자 수가 1000만명이 넘는 파워블로거로 알려졌다. 이들은 '베크로'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포털 뉴스에 달린 특정 댓글의 공감 수를 폭발적으로 늘리거나 조작했다.

드루킹이 스스로 밝힌 바에 의하면 실제로 지난해 대선 후보 경선 및 대선 본선에서 자신들의 댓글 공작이 상당한 효과를 발휘했다는 것이다.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격차가 급속히 줄어들고 있을 때 드루킹이 이끌던 '경공포'란 조직이 '안철수는 이명박의 아비타'라고

공격했고 그 뒤 안 후보의 지지도가 추락했다고 한다.

인터넷에 게시된 콘텐츠 아래에 짧은 글을 남기는 댓글은 다른 사람의 생각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이제 온라인 문화로 정착되고 있다. 인터넷에서 뉴스를 읽은 독자들은 이에 동조하거나 비판하고 다양한 의견을 다는 등 표현의 자유를 누리고 있다. 특정 사안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이 이루어지면서 여론 형성에도 기여를 한다. 개인이나 기업, 심지어 정부의 정책이나 활동도 비판적인 방향으로 유도하기도 한다.

그런데 인터넷 댓글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댓글의 악명성을 이용해 악의적으로 남을 공격하거나 허위 사실을 퍼뜨리는 소위 악플이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있다. 또한 일바를 고용해 포털의 댓글이나 조회수를 조작하고 여론을 조작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는 등 새로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드루킹 사건을 계기로 포털 댓글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언론사의 기사를 포털 사이트에서 보여주는 인링크 대신

뉴스를 클릭하면 해당 언론사로 옮겨가는 아웃링크를 시행하지는 법안도 제출하고 있고 심지어 댓글의 부정적인 효과에 주목해 인터넷에서 댓글 기능을 삭제하고자도 주장한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와 건전한 여론형성 등 긍정적 효과를 생각할 때 댓글의 폐지는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인링크는 댓글 조작이 용이한 단점이 있지만 여론형성 등 순기능이 있고 아웃링크는 댓글 조작의 위험은 적지만 가짜 뉴스의 양산 우려가 있는 등 장단점이 있으므로 댓글의 순기능과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하는 동시에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따라서 이번 드루킹 사건을 계기로 댓글 문화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우선 수사당국은 이번 드루킹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이들이 법외 불법 활동내역이 무엇인지, 활동경비는 어디서 얼마를 조달했는지, 어디에 어떻게 사용했는지 밝혀야 한다. 권력 유무나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가 관여했는지도 은폐해서는 안 된다. 소상히 밝혀서 응분의 책임을 물어 재발이 없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

다음은 법·제도적 조치와 함께 기술적 방책도 강구해야 한다. 현재 네이버와 카카오 등 포털 사업자들은 매크로프로그램을 이용한 댓글조작 방지를 위해 캡차(CAPTCHA)라는 문자인증 보안 기술을 적용해 왔으나 이미 이를 뚫는 기법은 개발됐고 댓글을 조작하는 기술적 수법도 진화하고 있어 캡차 등 현재의 기술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또한 포털 측이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거나 오히려 포털 측은 상업 목적으로 댓글 수와 공감 수를 늘도록 유도하거나 댓글 조작을 방치한 측면도 있다.

따라서 기성 '드루킹 방지법'을 제정해 댓글을 조작하거나 악성 댓글을 생성하는 사람들에 대한 법적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포털 등 인터넷 사업자의 역할도 분명히 하고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포털 사업자에게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댓글조작을 방지하거나 자동으로 악성 댓글을 걸출하는 기술적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 또한 정부는 장기적으로 유아 시절부터 미디어 리터러시나 인터넷 윤리를 증진시키는 교육과정의 개편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칼럼 김해빈 / 시인, 칼럼니스트

사람, 인간 그리고 교육



역사 이래로 사람이 사람을 가르치는 교육은 끊임없이 시행되었다. 가정과 학교, 선후배와 동료, 자신의 자각 등 많은 교육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하여 사람은 지식이 쌓이고 그 지식에 의하여 사람의 행동을 한다. 한때 사람이 아닌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은 인류가 처한 가장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국어사전에서 '사람'을 찾아보면 '두 발로 서서 다니고 언어와 도구를 사용하며, 문화를 누리고 생각하고 웃음을 가진 동물'로 되어 있다. 그러면 '인간(人間)'은 무엇인가. '직접 보행을 하며 사고와 언어 능력을 바탕으로 문명과 사회를 이루고 사는 고등 동물'로 되어 있다. 즉 사람 '人'자에 사이 '間'자를 쓰지만 사람의 뜻과 같다. 다시 말해 사람과 인간은 같은 말이다. 하지만 그 의미

가 다른 것은 사람은 그냥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고 인간은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사람이 사는 사회를 이르는 말이라 할 수 있다. 지구상에 동물은 많다. 그중 직립보행을 하며 말을 할 수 있고 글을 쓰는 동물은 사람밖에 없어 가장 상위의 동물로 칭한다. 그러나 다른 동물은 과연 말을 못 할까?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다.

서로 통용되는 소리를 질러 의사표시를 하고 지역을 나누어 영역을 표시하며 서로 침범하지 않는 약속을 하기도 한다. 사람이 이해하지 못한다고 다른 동물은 언어가 없다고 단정하지는 못한다. 사람도 처음부터 말을 한 것은 아니다. 어떠한 의사표시로 소리를 지르고 손짓 발짓을 해가며 소통하다가 약속 때문에 어느 소리는 무엇을 칭하고, 소리의 높낮이는 어떻게 하지는 약속에서 언어는 발생하였고 거기서 더 나가 상형의 문자를 만들어 의사소통하다가 글자를 만들어내었다고 본다. 한마디로 언어는 약속에 의한 소통이다. 사람과 달

리 다른 동물은 아직 그러한 과정을 거치지 못하여 단순한 소리로만 소통하는 것이다.

사람이 말을 할 수 있을 때부터 사람이라 칭하고 한 걸음 더 나가 집단이 이루어 인간사회를 만들기까지는 수많은 시간과 시행착오를 거쳤을 것이다. 단순한 동물에서 사람이 되기까지 뇌의 크기는 커졌고 뇌의 크기에 비례하여 학습에 의한 지식이 쌓여갔다.

그로 인해 지혜와 도덕과 인성도 안정되어 간 것이다. 인간이 되기 위하여 서로 간 갖춰야 하는 사람의 길은 필요하다. 그것은 사람을 넘어 인간으로 발전되기 위한 과정이다. 상고시대부터 이러한 사상은 발전을 거듭하여 공자와 맹자 등 수많은 성자를 탄생시켰고 종교도 발전하여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을 가르쳤다.

하지만 현대에 도저히 사람이라 불리지 못할 행동으로 인간사회에서 추방해야 할 사람이 많다. 친밀을 성폭행하는 짐승 같은 사람, 부모·형제를 해치는 패륜아, 어른과 아이를 구분하지 못하고 독선과 아집으로 뭉쳐져 남을 해

치는 등 사람이 만든 인간사회에서 사람이 아니라 불리지 못할 만큼 극악무도(極惡無道)한 행동을 보이는 사람을 어떻게 사람이라 할 수 있겠는가. 가르칠 수밖에 없다. 성직자라고 반드시 사람다운 사고를 하는 것만도 아니고 남을 가르친다고 다 바른 사람이라고 볼 수도 없다.

그래서 '사람사회'라고 하지 않고 '인간사회'라고 부르는 것이다. 사람이 아닌 인간,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엮어주고 하나로 만들어 사람답게 이끌어가는 관계, 이것이 인간관계다. 그것을 위하여 학교가 필요하고 현재의 교육은 기성보다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의 교육상태는 어떤가. 삼급학교를 진학하기 위하여 또는 좋은 성적으로 취직하던가 아니면 높은 지위에 올라 권력을 쥐려는 목적으로 오직 주입식의 교육만이 편하다.

이렇게 받는 교육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방법을 외면한 교육이 되고 만다. 범법자는 높은 권력자들에게서 더 많고 그들이 저지른 범죄는 상상을 초월한다. 요즘이야말로 사람답게 사는 교육이 절실한 때다.

사설

선플운동과 생명존중문화

한국 자살률은 2010년 이후 줄어들어 2010년 33.5명에서 2016년 25.8명으로 떨어지고 있지만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목숨을 끊으려는 아이는 지난해 451명으로 6년새 2배로 늘었다.

자살로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손실은 막대하다. 건강보험공단 자료(2014년)를 보면, 자살한 당사자의 미래소득 감소분만 고려해도 사회경제적 비용은 연간 6조5천억원이나 된다. 5가지 주요 사망원인 중 암(14조원)에 이어 가장 높은 수준이다.

사망으로 이어지지 않은 자살 시도로 인한 외상·후유증 치료비, 자살유가족의 신체·정신질환 치료비 등을 반영하면 자살의 사회적 비용은 추계규모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012년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사업을 벌이고 정부 자살예방 정책을 지원하는 중앙자살예방센터를 신설하고, 기초단위 자살예방센터를 운영 중이다. 올해 1월에는 자살률을 2022년까지 17%로 줄이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자살예방 행동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지난 5년간 자살로 생을 마감한 7만 명에 대한 경찰 수사자료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자살의 특징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위험 신호를 인지해 자살을 시도하기 전에 도움을 받도록 연계해주는 '생명보호 지킴이' 100만 명을 양성하기로 했다.

2월에는 자살예방 대책을 책임지고 추진할 전담부서인 '자살예방정책과'를 신설했다. 하지만 지난해 목숨 끊으려는 아이는 451명으로 6년새 2배로 늘었다는 보도가 있었고, 최근 교육부 학생성서 행동특성 검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위험군 학생은 2016년 8891명 보다 2배로 늘어난 1만 6940명으로 증가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어린 학생들은 어릴 때부터 스마트폰을 통해 자살, 자해 콘텐츠에 그대로 노출된 점도 영향을 줬다는 지적이 많다. 올 초부터 초등생 사이에선 유튜브에 올라온 '대기리박고 자살하자'는 내용의 '자살송'이 유행했고, 10대들 사이엔 자해 사진을 소셜 미디어에 올려 공유하는 현상도 있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이 지난 7월 2주간 온라인의 자살관련 콘텐츠를 모니터링 했더니 8039건이나 쏟아졌다. 작년 같은 시기보다 38배 늘어난 수치다. 이중 자해 사진이 84%였다. 자살이유로는 어릴때부터 학습부담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가장불화나 맞말이 가정이 많아 부모와 소통시간은 부족하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자살시도 학생들은 우울, 불안감 해소, 277명, 분노 해소 125명 등을 이유로 꼽았다.

이런 현실에서 민간에서 다양하게 펼쳐지는 비영리단체들의 생명존중 활동은 필요 불가결한 상황이다. 생명보험재단에서는 GOT7, 박지민 등이 참여한 <다 들어줄게> 음반을 통해 멜론 등 음원사이트나 유튜브 등에서 청소년들이 노래를 들을 수 있게 하여 청소년 자살예방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해마다 9월 10일이면 자살예방의 날을 맞아 교육부, 교육청, 각급 학교에서는 관련 자료를 전시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생명존중에 대한 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등교교길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캠페인을 진행한다.

캠페인에 참여한 학생들은 저마다 캠페인을 통해 생명을 더욱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삶이 힘들고 지칠 때 주위에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었다는 답변을 통해 결국 청소년들이 스스로 참여하고 실천하고, 타인에게 영향을 주는 캠페인이 효과적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특히 지난 2007년 여배우 유니의 자살로 시작된 선플운동은 생명까지 빼앗은 인터넷 악플추방과 혐오발언 예방활동을 펼쳐온 선플달기운동으로 청소년들이 악플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생명존중 선플달기를 통해 우리 사회에 긍정에너지 전파와 청소년 인성교육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국내외 7천여 학교와 단체가 참여하고 있고, 선플달기운동 홈페이지에는 68만 명의 회원들이 올린 선플이 700만 개를 넘어섰다. 또한 교육청 차원에서 선플운동을 전면 도입한 울산교육청은 "선플달기운동 도입 이후, 학교폭력 발생률이 절반 이하로 감소하는 등 청소년 인성교육과 학교폭력 예방에 큰 효과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 밖에도 생명존중 시민사회단체에서 생명존중 1000인 선언 및 생명주간을 선포하고, 기독교, 불교, 원불교, 천주교 등 4대종단이 '2018 살(자) 사(합)하자' 프로젝트 4대종단과 함께하는 열린 포럼을 통해, 향후 종교가 자살예방을 위해 변화해야 될 역할을 논의하고 있다.

국회자살예방포럼이 국회의원회관에서 국제세미나를 갖는 등 오는 12월까지 '선진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 대책은 무엇인가?, 각 기관의 역할은 무엇인가?, 법제도 개선방안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차례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우리 사회 전반의 자살예방 시스템의 취약성과 문제를 되돌아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악플 추방과 건전한 인터넷 문화 조성을 위한 청소년 인성교육 & 선플캠페인 정기 기부



계좌이체: 신한은행 140-011-456034 (선플재단)

Table with contact information for Sunpl Foundation, including phone numbers, email, and website details.



교보생명 60년의 믿음 교육이 미래다

아이의 미래는 누구도 알 수 없기에
인생을 살아갈 힘을 키워주어야 합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교육이다.'
변치않는 그 믿음으로
새로운 교육보험을 다시 선보입니다.

교육자금을 보증하는 신개념 변액교육보험
미리 보는 (무)교보변액교육보험

- [자녀를 위한자금 마련]** 대학학자금, 아학연수 비용, 주거비용 등 목적에 맞게 필요한자금 마련 가능
- [튼튼한 최저교육자금 보증]** 운용성과에 관계 없이 최저교육자금을 보증하고, 운용성과가 좋을수록 더 많은 교육자금 지급
- [성장기에 다양한 질병 보장]** 특약으로 치아, ADHD, 암 등 다양한 질병보장에 수술 및 입원까지(해당특약 가입시)



*최저교육자금 보증을 위해 별도의 보증비용이 계약자적립금에서 차감됩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약관에서 정한 최저시망적립금, 교육자금 보증, 미래준비자금 보증 및 특약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교보생명에 가입한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보통금이나 사고보통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변액보험은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른 이익과 손실이 계약자 및 보험수익자에게 귀속되는 실적배당형 상품으로서 계약자적립금, 해지환급금 등이 매일 변동되고 해지환급금의 최저보증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부활(요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신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의 자세한 내용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사인확인필 1-1808-20 상품지원팀(2018.08.23)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2018-3198호(2018.8.24)